

원희룡 장관, “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적극 지원”

- 14일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…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4일(토) 오전 서울에서 칼리드 알 팔레 (Khalid A.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이날 조찬 간담회는 「제4차 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」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, 한국의 주요 건설 기업들도 동석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“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협력국 이므로, 국토교통부는 기존 협력 분야인 건설·인프라, 플랜트뿐 아니라 스마트시티, 미래 모빌리티·2차전지, 그리고 문화·관광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우수한 한국 기업과 원팀코리아를 가동하여 함께 하고 있다”라면서,
 - “작년 11월 양국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체결한 업무협약(MOU) 등 정상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 - 아울러, 조찬 간담회에 동석한 한국 기업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사우디 투자부 소관 관심 사업들에 대한 투자 제안과 기업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.
- 이에 알 팔레 장관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“한-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에 방문하여 많은 기업들을 만났고, 이 자리에서도 주요 건설기업들을 만나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라고 화답하였다.
 - 또한, “한국은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, 금융 지원 등 방안을 마련 중”이라면서,

- “건설·인프라 분야 **메가 프로젝트**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**적극적인 동참**을 요청드리며,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바라며 미래 비전을 지속 논의하길 희망한다”라고 밝혔다.
- 원 장관은 “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우디에 원팀코리아를 파견하였고, 7월에는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으며 사우디 고위급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”라고 평가하고,
- “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·방산·바이오·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**패키지 진출**을 통해 **성과 확대**를 도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10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